논어 19편 자장 17장 · 원문·풀이

曾子曰：「吾聞諸夫子：『人未有自致者也，必也親喪乎！』」

독음 · 증자왈 오문저부자 인미유자치자야 필야친상호

쉬운 풀이(요약) · 사람이 온 마음을 다 드러내는 일은 드물지만 부모의 상에서야말로 그럴 수 있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曾 일찍 증 증 / 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吾 자기 오 오

聞 들을 문 문 / 諸 모든 제 제 / 夫 지아비 부 부 / 人 사람 인

未 아닐 미 미 / 有 있을 유 / 自 스스로 자 / 致 이를 치 치

者 놈 자 / 也 어조사 야 / 必 반드시 필 필 / 親 사랑할 친 친

喪 죽을 상 상 / 乎 어조사 호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